

研究論文

# 조선시대 녹둔도(鹿屯島)의 역사와 영역 변화

이왕무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학박사, 역사 전공

ellias@hanmail.net

- I. 머리말
- II. 녹둔도의 역사와 시대적 변화
- III. 녹둔도의 지리적 변천과 연륙화(連陸化)
- IV. 녹둔도 영유권의 상실과 영토협상
- V. 맺음말

## I. 머리말

녹둔도는 한국사에서 잃어버린 역사로 오늘날 러시아 역사에 편입된 조선시대 두만강 하구에 위치하던 섬이다. 역사적으로 녹둔도는 조선전기부터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의 방비와 여진족의 내륙침입을 막는 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녹둔도는 외적이 침입하는 지점의 수심이 깊어 왕래가 어려운 반면, 조선인이 다니던 길은 알아서 접근이 용이했다. 따라서 지형적으로 조선의 영토가 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그리고 녹둔도는 두만강 이북 야인(野人)들과 접촉하는 최북방에 위치하며, 그들의 침입을 예측할 수 있는 곳으로서 군사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전기부터 군민(軍民)이 주둔하던 곳이었다. 이순신이 녹둔도에서 여진족의 침략을 방어한 사건은 이곳의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조선후기로 오면서 녹둔도는 섬의 기능을 상실하고 연해주에 이어지는 육지가 되어 더 이상 조선의 영토로서 존재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늘날 녹둔도가 두만강 하구의 범람과 퇴적물로 인해 러시아령과 연륙(連陸)되어 있어서 본래의 섬 형태는 물론 그 크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반면 녹둔도가 육지가 된 이후에도 조선인이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지속되었다. 두만강의 잦은 범람과 거주인이 희박했던 관계로 농경지로는 최적이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토지를 개간하고 거주하는 민인들이 조선후기에도 존재하였다. 녹둔도에 조선인이 거주하는 것은 한말에도 이어져서 러시아령 최초의 한인마을이 형성되기도 하여 한러관계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였다.

녹둔도가 우리 역사에서 러시아로 편입된 것은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북경 점령 때문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청국과 서구 제국의 외교를 중재하면서 그 대가로 연해주 일대를 영유하게 되었으며 녹둔도가 그것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당시 녹둔도가 러시아에 넘어간 것은 청국의 독단적인 일이었으며, 역사적으로나 실질 거주자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조선정부에는 어떤 외교적 통보도 없었다. 따라서 오늘날 크라스노예 셀로(아름다운 마을)<sup>1)</sup>라고 불리는 러시아 영토는

1) 1895년 러시아왕립지리학회에서는 1875년 조선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창설한 크리

녹둔도라는 지명으로 한국 역사 속에 존재하였다가 근대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 와중에 상실된 영토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녹둔도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고토의 회복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많이 전개되고 있으며, 대체로 청국과 러시아 간 조약의 불법성으로 인해 녹둔도를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sup>2)</sup> 또한 최근에는 연해주 개발과 더불어 녹둔도의 이용가치와 지리적 특성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현장을 답사한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sup>3)</sup> 이처럼 녹둔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연대기 자료라는 한정적인 사료에 치중한 것이 많았으며, 지도 등의 다양한 자료와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녹둔도의 시대적 변화와 역사적 사건이 유기적으로 설명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특히 조선시대 일부 시기만을 부각시킨 채 설명하여 녹둔도를 국지적인 분쟁이 발생하던 지역으로 바라보는 시각까지 나타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녹둔도의 역사상 전개와 지리적으로 변천하는 모습을 조선시대 고지도를 중심으로 조명하여 한국사와 국제적인 변화에 따라 좌우되던 한국 북방 영토의 한 모습을 살피고자 한다.

## II. 녹둔도의 역사와 시대적 변화

녹둔도가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고려말 조선초기라고 생각된다. 그 이전에는 이 지역에 녹둔도와 같은 크기의 섬이 기록상에 나타나지

---

스노에 셀로가 두만강과 표트르대제 만 사이에 산재하는 11개 마을로 구성된 커다란 마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측에서는 크라스노에 셀로가 녹둔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지역 전체를 포함해서 불렀음을 알 수 있다(반병률, 「러시아 연해주 두만강 하구의 한인마을 - 크라스노에 셀로(鹿屯島, 鹿島, 鹿坪)의 형성과 변화」, 『한러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동북아역사재단, 2010).

- 2) 반병률, 「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 지신허」, 『한국근현대사연구』 26(2003); 양태진, 「한러국경선상의 녹둔도」, 『한국학보』 19(1980); 양태진, 「한러 국경 형성의 배경과 녹둔도 상실」, 『백산학보』 26(1981); 양태진, 「연해주 지역의 한인이민과 녹둔도의 영속 문제」, 『한국북방학회논집』 3(1997); 유영박, 「녹둔도의 連陸過程과 국경분쟁의 未決遺産-녹둔도의 歸屬問題」, 『진단학보』 44, 1977.
- 3) 서무송 외, 『지리학 삼부자의 중국지리 답사기』(푸른길, 2004); 안재섭, 「두만강 하류 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러시아 핫산지역과 녹둔도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제38권 2호(2004); 이기석 등, 「두만강 하구 녹둔도의 자연과 토지이용」, 『지리교육논집』 44, 2000; 이옥희, 「두만강 하구 鹿屯島의 批正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39권 제3호(2004).

않았기 때문이다. 녹둔도를 발견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는데, 녹둔도가 두만강의 하구연 삼각주의 하나였다가 섬이 된 것으로 추정할 따름이다. 따라서 녹둔도의 역사는 조선초기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녹둔도는 사차마도(沙次麻島)<sup>4)</sup>, 사혈마도(沙汧麻島)<sup>5)</sup>라는 이칭으로 조선전기부터 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곳<sup>6)</sup>으로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의 방비와 여진족의 내륙침입을 막고 견제하는 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이용되었다. 녹둔도가 조선의 영역이 된 것은 세종대 육진(六鎭)의 개척 때 경흥(慶興)에 행정적으로 소속되면서부터이다. 이때 녹둔도는 경흥부 조산보(造山堡)에 소속되었고 조산보의 만호(萬戶)가 관할했는데,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기능은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녹둔도는 농보(農堡)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둔전을 설치해서 혹은 농민들이 왕래하며 농사를 경영하던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sup>7)</sup>

녹둔도라는 이름이 연대기 문헌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455년(세조 1) 8월로서 녹둔도에 야인(野人)이 몰래 들어와 약탈할까 염려하여 방어를 더욱 엄하게 하도록 명하고 있다.<sup>8)</sup> 이때 녹둔도는 조산보에 속해 있었다. 조산보에 거주하는 군사와 백성들이 녹둔도에 들어가 농사도 짓고 수확하면서 방수(防守)하는 형태였다.<sup>9)</sup> 따라서 당시 녹둔도에 거주하는 영구적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나 농사 경영을 위한 일시적인 이유에 따라 단기간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녹둔도에 일시적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은 군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농토가 비옥하여 농경에 적합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조산보의 군민(軍民)들이 이동했다고 한다.<sup>10)</sup> 봄에 농사지를 때가 되면 조산보의 만호가 군민을 거느리고 조산보를 비워둔 채 녹둔도에 가서 토성(土城)과 방어 기계를 만들며 농경을 하다가 가을이 되면 돌아왔다. 이때 녹둔도에

4) 『慶興府事例』, 『읍지 13, 함경도』(아세아문화사, 1986), 281-283쪽, “鹿屯島, 一名沙次麻, 在府東七十里.”

5) 『咸鏡道慶興都護府邑誌』, 『朝鮮時代 私撰邑誌』(한국인문과학원, 1990), 318쪽, “島一名沙汧麻, 在府南五十六里.”

6) 『세종실록지리지』, 「함길도」, 〈길주목〉.

7) 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0, 경흥도호부, 327-329쪽.

8) 『세조실록』 1년 8월 계축, “……造山口子鹿屯島, 農民布野時, 骨等乘船潛入, 搶掠可慮, 密諭鎭將及萬戶, 嚴加備御.”

9) 『성종실록』 17년 2월 무술.

10) 『중종실록』 4년 4월 경인.

왕래하면서 모두 가산(家産)을 날랐으므로 백성들이 유망(流亡)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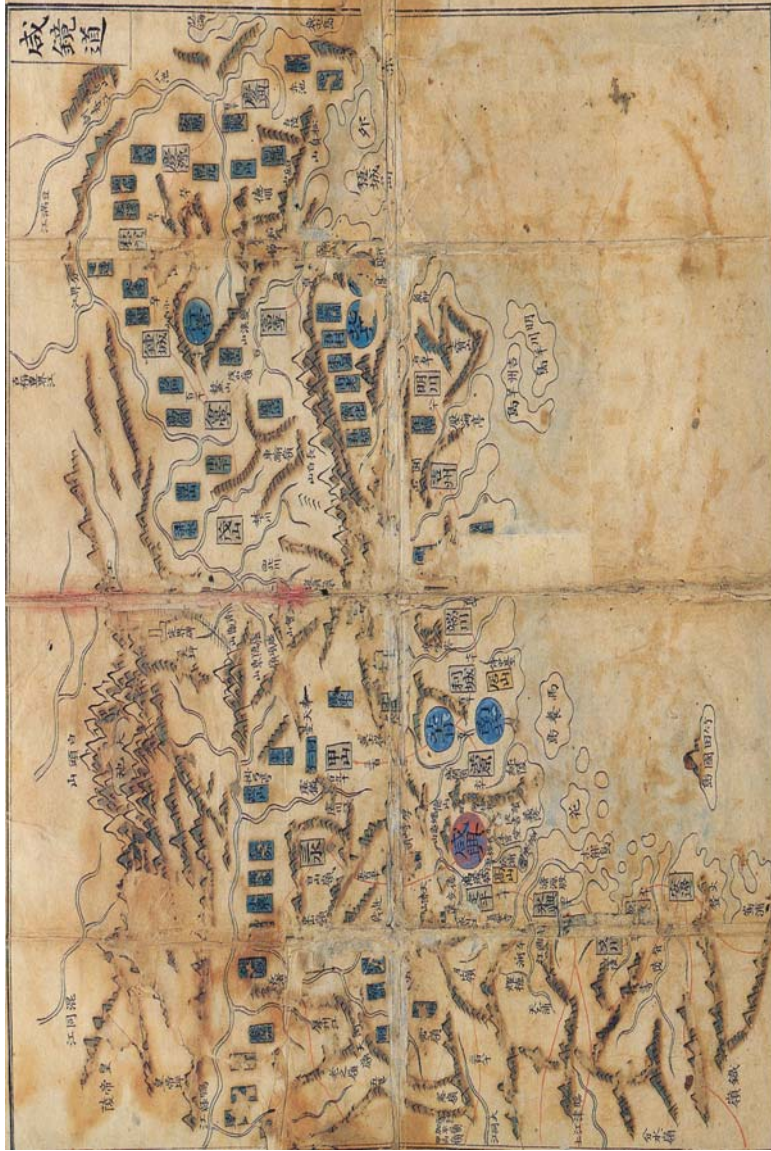


그림1-함경도 변경의 조산보와 鎭堡<sup>12)</sup>

11) 『중종실록』 37년 5월 신축.

12) 서울역사박물관 편, 『이찬기증 우리 옛지도』, 함경도 지도(서울역사박물관, 2006).

이런 배경으로 조산보를 녹둔도로 이설(移設)하자는 의견까지 나왔  
다.<sup>13)</sup> 당시 조산보는 성(城)의 높이가 10척(尺), 둘레가 3,522척이었다.<sup>14)</sup>  
성종대 조산보는 야인들의 침입에 안전하지 않아<sup>15)</sup> 보(堡)를 옮기거나  
추가로 성을 쌓자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변방지역의 전초지였다.<sup>16)</sup>  
1528년(중종 23) 왜구의 침략선 200여 척이 서수라(西水羅)에 침략한  
것과 1551년(명종 6) 두만강 일대에 야인이 쳐들어 온 것을 조산보에서  
물리쳤을 정도로 조산보는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다. 조산보에서 왜적의  
방어에 성공한 이후 순찰사 정언신(鄭彦信)은 녹둔도에 둔전(屯田)을  
설정하고 경흥부사로 하여금 개간토록 하였다. 이후 선전관 김경눌(金景訥)  
을 둔전관(屯田官)으로 임명하여 녹둔도에 목책을 세우고 대대적인  
개간 사업을 추진하게 하였다. 이는 조산보와 녹둔도가 모두 두만강  
하구에 위치하여 동해로부터 침입하는 왜적의 출구를 막는 곳이기 때문이  
다. 이처럼 녹둔도는 조산보의 방어와 농경의 용이함 등으로 인해 조선전  
기부터 군민이 주둔하며 둔전을 경영하는 군민 양측에서 중요시하던  
섬이었다.

녹둔도 둔전의 경영은 선조대에도 함경도 순찰사 건의에 따라 지속되었  
다.<sup>17)</sup> 1583년(선조 16) 정언신이 군량을 비축하기 위해 둔전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1586년 조정에서 선전관 김경눌을 둔전관으로 파견하여 목책(木柵)  
을 설치하고 남도(南道) 군역(軍役)에서 빠진 군병을 농부로 삼아 농지를  
개간하게 하였다. 녹둔도와 연관된 사건과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순신이  
만호로 있을 때 벌어진 야인의 습격이다. 1587년 조산보 만호였던 이순신은  
녹둔도의 둔전도 담당하였다. 당시 9월에 녹둔도에서 추수를 거행할 즈음,  
여진의 추장 마니응개(牟尼應介)와 사송아(沙送阿) 등이 두만강 하구의 추도  
(楸島)에 무리를 모아 공격해 왔다. 이때 녹둔도의 수호장 오형(吳亨)과  
감타관(監打官) 임경번(林景藩)이 모두 전사했으며, 경흥부사 이경록(李景祿)  
과 이순신이 힘을 다해 막았으나 결국 참패를 겪었다.<sup>18)</sup>

다행히 마니응개가 참호를 넘어 쳐들어오면서 급제(及第) 이몽서(李夢

13) 『중종실록』 5년, 3월 경신.

14) 『성종실록』 19년 3월 계사.

15) 『성종실록』 22년 1월 병신.

16) 『성종실록』 24년 4월 무신.

17) 『선조수정실록』 16년 12월 기유.

18) 『선조실록』 20년 12월 경진.

瑞)와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자 나머지 적병들이 모두 도망갔으며, 이순신이 그들을 뒤쫓아 포로가 된 농민들을 되찾고 적병들을 참하고 돌아와서 사건의 결말은 조선군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이순신 등의 죄를 물으려다 백의종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해 겨울에 병사(兵使) 이일(李鎰)이 조산보에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다가 얼음이 언 강을 건너 추도의 적지를 공격하였다. 이일은 추도의 오두막 17채를 불태우고 33명의 수급(首級)을 베어 왔다. 또한 이일은 1587년 겨울에도 재차 공격하여 200여 채를 불태우고 300여 명의 수급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이후 광해군대에 서수라가 함락되고 조산보가 공격당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녹둔도를 잃게 된다.<sup>19)</sup>

선조는 정언신과의 대화에서 녹둔도에 대한 조선정부의 인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녹둔도는 오랑캐의 지역과 너무 가까워 오랑캐들이 침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로서 처음부터 이 같은 일이 생기기라는 것을 우려하지 않던 것이 아니었다. 녹둔도는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우리의 농장(農庄)이었는데, 경(정언신)이 군량(軍糧)이 어려운 형편에 놓인 것을 목도하고 백성들을 들여보내 농사를 짓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잘못인가…….<sup>20)</sup>

위 기사에서 선조는 녹둔도를 조선초기부터 경영한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변방에 위치하여 적의 침입이 잦은 곳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근대적 국경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국왕의 입장에서 조선의 영역이 중국과 구분되는 변방의 요충지임을 알리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녹둔도는 조선시대 변방의 주요한 군사기지이며 영토로서 인식되던 역사적 유래가 깊은 곳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광해군 이후 녹둔도는 점차 조선 역사에서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1640년(인조 18) 야인에 의해 녹둔도에 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보고에 대해 조정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 야인들이 두만강을 끼고서 우리 영토를 침략하려는 계산이라면서, 예전에 둔전을 두었던 것이 이런 이유에서이며 그것으로 인해 야인의 노략질이 없어졌다는

19) 「咸鏡道慶興都護府邑誌」, 『朝鮮時代 私撰邑誌』(한국인문과학원, 1990), 318-319쪽.

20) 『선조실록』 20년 10월 기미.

분석만 내릴 뿐이었다. 심지어 녹둔도를 중심으로 하는 분쟁은 예전부터 있던 일이라며 방치하려는 경향까지 보였다.<sup>21)</sup>

이것은 광해군대에 후금의 성장과 만주지역의 긴장관계로 인해 조선정부가 녹둔도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결과로 보이는데, 실제로 양차의 호란(胡亂)을 겪으면서 녹둔도 인근에 대한 방어나 침략이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대외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녹둔도의 지정학적 중요도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청나라 건국 이후 여진족의 정치체(政治體)가 하나로 통일되어 두만강을 넘어 녹둔도를 침략하는 집단이 사라진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sup>22)</sup>

광해군대에 관심사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녹둔도는 영조대에 이르러도 조선전기와 같이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영조대는 녹둔도에서 농사를 경영하는 것을 쥐새끼 무리라고까지 폄하하기도 했지만<sup>23)</sup> 섬에서 수렵과 채취는 허용하였다. 당시 녹둔도에는 나무가 없고 사초(莎草)가 무성하여 가을이면 병사(兵使)가 장교(將校)와 마보군(馬步軍)을 이끌고 사냥을 하거나 백성을 동원하여 베어 온 풀로 자리를 만들어 관에서 사용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또한 섬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개간은 포기한 상황이었으며 위화도와 같이 공도(空島)로 두는 것이 좋다는 반응까지 보였다.<sup>24)</sup> 정조대에도 불법으로 월경하여 임산물 채취하는 자들은 있었지만 이주하여 땅을 개간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sup>25)</sup> 따라서 조선후기로 갈수록 녹둔도는 황무지로 방치되고 군사시설로도 활용되지 않는 무인도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녹둔도가 환경적으로 조선전기에 비해 크게 바뀐 결과이다. 녹둔도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식생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구한말의 기록이나 오늘날 녹둔도 지역의 지형을 분석해보면, 당시의 녹둔도는 농경을 하기에 부적합한 땅이었다. 초목 없이 사구(砂丘)와 습지가 사방에 있고, 심지어 난방을 할 화목(火木)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하였다. 조선초기 녹둔도가 두만강 물줄기 흐름에 따른 하구의

21) 『승정원일기』 74책, 인조 18년 4월 갑자(13일).

22)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푸른역사, 2009).

23) 『승정원일기』 796책, 영조 11년 3월 을해(5일).

24) 『승정원일기』 1,017책, 영조 23년 6월 경오(11일).

25) 『승정원일기』 1,500책, 정조 5년 12월 임진(24일).



퇴적층으로 인해 탄생한 이후 또다시 물길의 변화에 따라 식생에 변화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두만강 물줄기의 변화로 인한 녹둔도의 변화는 섬의 위치뿐만 아니라 섬 자체가 옮겨졌다는 주장에서 하구언의 지형이 옮겨가며 만들어진 상상의 섬이라는 추론도 생각할 수 있게 한다.<sup>27)</sup>

정조 이후 녹둔도는 더 이상 연대기 자료에서 언급되지 않다가 철종대 이후 러시아인의 점거 때부터 다시 논의가 재기된다. 거의 100여 년간 역사적 공백이 있는 셈인데, 당시 조선의 사정을 보면 대외적으로 청국, 일본과의 외교는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순조대 홍경래난 이외에 별다른 소란이 없었다. 따라서 녹둔도와 같이 두만강이라는 극변(極邊)에 위치한 곳이 중앙정부의 관심이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이 시기에 제작된 다양한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대부분의 지도들이 녹둔도의 답사 내지 조사 없이 구전되는 것이나 기존 자료에 의거해 위치를 비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녹둔도에 거주하던 인원과 군사시설 내지 농경의 규모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에는 현재로서 증빙할 사료가 없어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다만 철종대 러시아의 녹둔도 점유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고종대에 녹둔도의 인구가 조사되는데, 이때 조사된 바에 의하면 113호구에 822명이 거주하고 있었다.<sup>28)</sup>

### III. 녹둔도의 지리적 변천과 연륙화(連陸化)

녹둔도는 고려말 조선초기부터 역사에 나타난다. 녹둔도가 두만강 하구의 섬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생각해본다면, 고려말에 이르러 이곳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하나의 섬을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녹둔도의 역사는 고려말 조선초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주요 사건과 지형의 변화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녹둔도의 위치를 추정하면, 먼저 조선전기 녹둔도의 위치

26) 민태원 외, 이지누 편, 『잃어버린 풍경2 1920-1940 백두산을 찾아서』, 117-130쪽; Isabella Bird Bishop, *Korea and Her Neighbors* (연세대학교, 1970), 223-238쪽.

27) 서무송 외, 『지리학 삼부자의 중국지리 답사기』(푸른길, 2004), 61-63쪽.

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아국여지도』(녹둔도, 2008).

는 경흥부의 남쪽 56리에 있으며, 조산포에서 20리 거리였다. 흙으로 보(堡)를 쌓았는데, 주위는 1,247척, 높이 6척이었다. 여름에는 조산포의 수군이 주둔하며 병선을 배치하였다.<sup>29)</sup> 조선후기 녹둔도는 경흥부의 남쪽 56리, 조산보와 30리<sup>30)</sup> 떨어진 두만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 있었다. 녹둔도 이외에도 두만강 하구 인근에는 적도(赤島), 마전도(麻田島), 추도(楸島), 난도(卵島) 등의 4개 섬이 더 있었다. 그리고 조선전기부터 설치되었던 보와 수군의 방어체제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폐지되었다.<sup>31)</sup> 따라서 『여지도서』가 작성된 시기인 18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녹둔도의 군사적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이후 행정적인 관할도 공백기에 접어들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철종대에 이르러 러시아인들이 녹둔도를 점유하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정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정부에서 녹둔도의 군보(軍堡)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것은 1895년(고종 32)이었다.<sup>32)</sup>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녹둔도에 조선정부에서 관할하는 군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1861년 러시아가 두만강변에 국경 경계비를 세우고 난 이후에는 녹둔도의 소유와 관리를 러시아가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1895년 녹둔도의 군보를 폐지했다는 것은 행정상의 체제를 의미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지 현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종대의 녹둔도는 이미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러시아 영토에 연륙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조선정부에서 군보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그곳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녹둔도가 육지화되는 것은 당시에 제작되었던 지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녹둔도의 시대적 위치와 지리적으로 육지화되는 과정은 당대에 제작된 지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0, 328쪽.

30) 김정호가 편찬한 『大東地志』에는 조산보와의 거리가 20리라고 되어 있다.

31) 김우철 외 역, 『여지도서 함경도』, 『경흥도호부읍지』(흐름, 2009).

咸鏡道(關北邑誌) 咸鏡北道慶興都護府邑誌 古蹟.

(前略)鹿屯島堡, 島一名沙麻在府南五十六里, 豆滿江八海處, 距造山堡三十里, 古有土城, 兵船造山堡萬戶所管, 夏則本堡水軍分守於此而今廢.

32) 국사편찬위원회, 『통감부문서』 2, 豆滿江邊六鎮位置沿革.

古孔州之地, 鹿屯島堡, 在南五十六里開國五百四年廢, 造山堡, 在東三十五里造山社開國五百四年廢.



그림2-大東總圖<sup>33)</sup>

먼저 시대적 위치의 변화를 보면, 17세기에 작성된 그림2의 『대동총도(大東總圖)』의 녹둔도는 지도 좌측 중하단에 두만강 하구 밖 연해주 앞바다 쪽으로 그려져 있다. 두만강 좌측의 경흥부 주변에는 해당 소속 보들이 좌우로 자리 잡고 있다. 여러 보 중에서 바다 쪽으로 두만강을 따라 내려온 곳에 위치하는 것이 조산보(造山堡)이다. 녹둔도와 조산보의 거리는 20-30리 사이라고 지리지에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경흥부에서는 56리라고 하였다. 경흥부에서

무이보(撫夷堡)가 36리<sup>34)</sup>라고 하고 있으므로 거리 계산상 경흥부에서 녹둔도까지 56리는 지도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녹둔도가 두만강 하구를 벗어나 동해로 나가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 물길의 변경으로 녹둔도의 북쪽이 연해주와 연결되어 육지가 되었던 사정을 생각한다면, 좌측 지도상에서 녹둔도가 위치하는 곳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시대적으로 녹둔도의 위치가 상이하거나 오류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지도를 작성한 사람의 오류이거나, 녹둔도에 대한 정보 없이 전신(傳言)에만 의존하거나, 기존에 작성한 내용을 반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두만강 유역이 한반도에서 오지 중의 하나로 조선시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고, 험준한 산세와 준령(峻嶺)으로 정확한 지형도를 작성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림2와 같이 녹둔도가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난 현상은 이후 조선말기까지 제작된 각종 지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정상적으로 위치가 비정된 지도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대한제국과 일제시대에 이르면 녹둔도의 위치가

33) 『해동지도』 규장각, 고4709-41.

34) 앞의 책, 「사찬읍지」 318쪽.

오늘날과 같이 두만강 하구연의 연해주 쪽에 정확하게 위치하게 된다. 다음의 그림들은 18세기와 19세기의 녹둔도 관련 지도인데 시대별로 조금씩 위치의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녹둔도 고유의 위치에서 모두 벗어나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림3-海東地圖<sup>35)</sup>



그림4-海東地圖<sup>36)</sup>



그림5-海東地圖<sup>37)</sup>



그림6-八道全圖<sup>38)</sup>

앞의 그림에서 녹둔도는 두만강 어귀는커녕 외해(外海)로 벗어나서 청진 쪽으로 내려와 위치하고 있다. 그림4, 5, 6의 녹둔도는 모두 두만강 하구를 벗어나 있으며, 그림5는 함흥 인근까지 내려와 있어서 지도의 제작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할 정도이다. 물론 해당 지역에

35) 『해동지도』 규장각, 고4709-61.

36) 『해동지도』 규장각, 고4709-107448.

37) 『해동지도』 규장각, 고4709-35.

38) 『해동지도』 규장각, 고4790-23.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그럴 수도 있지만, 조선후기 각종 『읍지』와 『지리서』에서 언급하는 내용만이라도 숙지하고 있었다면 이런 오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림7-大東輿地圖<sup>39)</sup>



그림8-海佐全圖<sup>40)</sup>



그림9-朝鮮全圖<sup>41)</sup>



그림10-我國摠圖<sup>42)</sup>

그러나 지도제작상의 오류는 그림7 대동여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후기로 갈수록 그 편차가 줄어들고 있다. 녹둔도를 두만강 하구언에 위치시켜 최대한 원래의 자리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림9, 10에서는 여전히 두만강을 벗어나 표현하고 있지만 다음 그림11, 12,

39) 「대동여지도」, 『輿圖』, 국립중앙박물관.

40) 『해좌전도』 규장각, 고4912.51-H118.

41) 『해동지도』 규장각, 고4709-75.

42) 『여지도』 규장각, 고4709-78.



13, 14에서는 더 이상 위치상의 오류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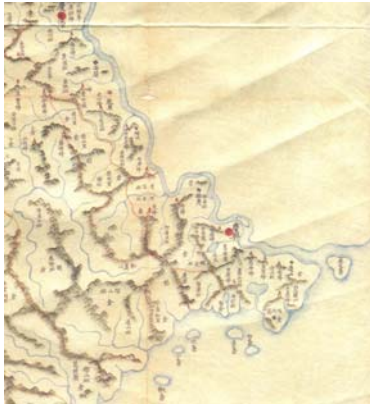


그림11-朝鮮八道地圖<sup>43)</sup>



그림12-八道地圖<sup>44)</sup>



그림13-八道分圖<sup>45)</sup>



그림14-八道地圖<sup>46)</sup>

다만 위의 조선후기 여러 지도에서 녹둔도의 위치와 형태가 객관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리적으로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겠다. 시대적으로 작성된 지도에 나타난 녹둔도의 위치를 추정해보면, 연해주에 연륙되기 이전의 모습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1890년대 부산의 일본영사 立田華가 블라디보스토크를

43) 『朝鮮八道地圖』 규장각, 고4709-54.

44) 『八道地圖』 규장각, 고4709-14.

45) 『八道分圖』 규장각, 고915.1.

46) 『八道地圖』 규장각, 고4709-23.

경유하다 경흥 감리였던 김우현(金禹鉉)에게 “수십년 전 강류(江流)가 변해 섬 서방으로 흘러 동쪽은 거의 수류(水流)가 없어짐에 따라 녹둔도는 연해주에 속해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보고<sup>47)</sup>를 통해서도 19세기 후반에는 녹둔도가 더 이상 섬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13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섬으로 표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조선후기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구체적으로 변하는데, 그림15의 경흥부 지도를 보면 잘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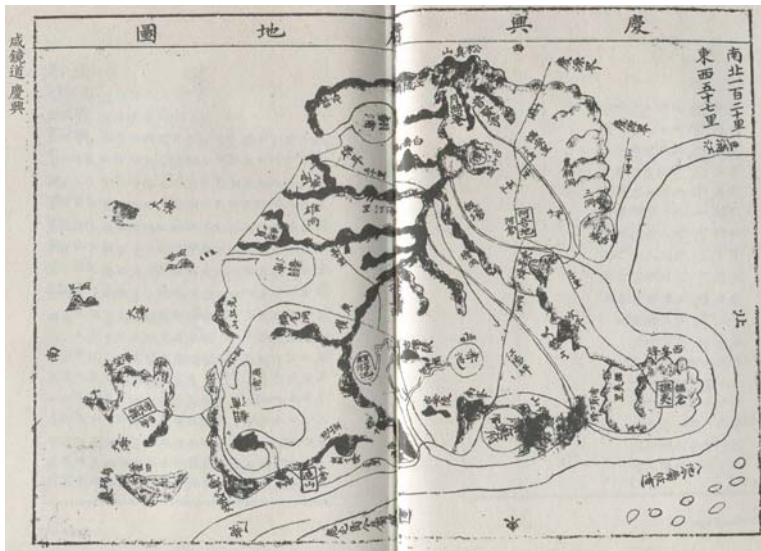


그림15-여지도서<sup>48)</sup>

그림15는 지방에서 제작한 지도로 모양새는 졸렬하지만, 두만강 하구 지역의 도서(島嶼)와 물줄기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이 지도에서 중앙 하단에 횡으로 쓰인 한자를 보면, “鹿屯島 今屬彼區”라고 하여 이미 조선의 영역이 아니라 연해주에 소속된 지역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우측 하단의 팔지(八池)는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호수로서 녹둔도가 연륙되었음을 증빙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조선 지도들과 달리 두만강 하구의 도서 배치와 각 경흥부를 비롯한 행정부서들이 비교적 정확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47) 일본의교문서, 『鹿屯島關係雜綴』, 機密第三號.

48) 『여지도서』 녹둔도, 경흥부.

이와 같이 조선후기로 갈수록 녹둔도를 비롯한 두만강 하구지역의 영역들은 보다 분명하게 지도로 작성되어 당시 사람들의 강역 인식이 기존과 달리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물론 대한제국 시기에 작성한 지도를 보면 여전히 기존의 녹둔도 지도들과 동일하게 두만강 하구를 벗어나 위치하고 있어서 정확도가 시대에 뒤쳐진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필사본의 채색화가 아니라 판화로 제작하여 대량으로 생산하는 지도에도 여전히 녹둔도의 위치가 두만강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일 것이다. 또한 1884년 청국과 간도지역의 영유권을 가지고 외교 논쟁을 한 감계회담에서 작성한 지도에서조차도 녹둔도가 두만강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음의 그림들이 그 오류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16-감계지도<sup>49)</sup>



그림17-대한여지도<sup>50)</sup>

그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기에 접어들면서 녹둔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고조되어 최초의 종합적인 조사와 기록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이다. 『아국여지도』는 고종이 직접 김광훈(金光薰)과 신선욱(申先郁)에게 밀명을 내려 녹둔도를 비롯한 연해주 일대를 조사하고 작성한 대러시아 동향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아국여지도』에

49) 『고궁박물관,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2010), 158쪽.

50) 『대한여지도』 규장각, 고축4709-47.



는 두만강 국경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지역들을 채색화로 작성하고 지역마다 거주하는 인구와 도로, 통신, 군사시설들을 표시하였다. 특히 녹둔도는 섬 전체를 채색하고 산천과 경계, 사람들의 거주 현황과 도로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현전하는 어떤 지도에서도 볼 수 없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녹둔도의 면적, 타 지역과의 거리, 호구, 조선인의 생활상과 인구, 관방(關防) 시설, 군병수(軍兵數) 그리고 생산물 등의 순으로 기입해놓아 당시 녹둔도의 역사적 삶을 유일하게 전해주고 있다.<sup>51)</sup>



그림18 『俄國輿地圖』의 녹둔도

그림18은 『아국여지도』의 녹둔도 부분만을 정리한 것이다. 지도 우측

5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아국여지도』, 녹둔도(2008).

○ 鹿屯島圖

自俄南界地，盡頭鹿屯入去內界，道里遠近表，自鹿屯北距延秋營一百三十里耐，北七十里東西三十里，平原廣野農刊巴沃，南距西水羅三十里，西距造山堡十五里耐，北距慶興府一百樹，北距瑞仙澤七十里，西挾豆江，東接大海，居住我民一百三十戶，人口八百二十二數，不供賦役，只養兒孫，高尚本國風教，不遵俄人俗習，蓋不忘列聖朝屢百年雨育之恩澤也，慶興誌有云，忠武公李舜臣造山萬戶時，因農壤偏薄，仍舊制屯田，於胡賊劫掠邊境，故罷屯田，還率農戶老者，于今幾百年，我民史入居住往往延入於三千餘里，古云土地者人民去來之處，江山者帝王興受之器折亦謂此也，土產物種，稻黍稷梁魚黃魚松魚大麥耳麥等種及青白鹽。

하단에 서수라(西水羅)라고 하는 부분에서 좌측으로 조산보(造山堡)까지 붉은 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교통로이다. 서수라의 위쪽 비어 있는 부분이 두만강이며, 그 이북이 녹둔도이다. 녹둔도로 추정되는 곳에는 러시아군의 방어시설과 조선인의 마을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녹둔도는 상단 부분에 두만강과 끊어진 채 흐르는 물줄기가 원래 녹둔도를 감싸 흐르던 두만강의 지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아국여지도』에서도 그렇지만 녹둔도는 19세기 후반 육지와 연결되어 더 이상 섬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두만강에서 녹둔도만이 강물의 침식과 퇴적으로 지형이 변경된 것이 아니었다. 1834년 경흥부(慶興府)도 두만강의 침식현상으로 북쪽 30리의 무이진(撫夷鎭)으로 위치를 옮겼다가 환원되는 과정을 겪었다.<sup>52)</sup> 오늘날에도 녹둔도는 장마 때나 여름에는 거의 전 지역이 물에 잠기는 습지이며, 동해로 흐르는 물길과 석호가 도처에 나 있다. 토지는 사구로 덮인 구릉지와 이를 메우는 저습지, 갈대숲, 석호 등으로 이루어져서 여름에는 차량은 물론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녹둔도의 자연환경이 후대로 내려올수록 사람의 거주와 농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점은 오늘날 녹둔도 인근을 방문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19는 연해의 무수한 습지와 석호, 갈대숲은 여전히 인간의 교통은 물론 거주지로 부족한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19-2010년 12월 녹둔도 인근지역<sup>53)</sup>

52) 「慶興府事例」, 『邑誌』 13, 咸慶道(아세아문화사, 1986), 281-283쪽.

반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러시아의 관할하에 있을 때는 『아국여지도』에도 나오듯이 많은 한국인이 촌락을 이루고 살았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조선으로 가는 길에는 녹둔도, 즉 크라스노예 셀로가 여정에 포함되었다. 예컨대 페테르부르크에서 시베리아철도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면, 포시예트 만으로 배를 타고 가서 다시 육로로 노보키예브스크에서 12km를 거쳐 자레치예, 폰탄카 강 계곡을 통해 녹둔도로 들어간 뒤에 조선의 국경으로 가는 길이었다. 당시 노보키예브스크는 보병과 포병대가 주둔한 군대의 중심지였다. 녹둔도의 농경지는 모두 조선인의 소유였으며, 기장, 귀리, 옥수수, 콩 등이 재배되었다. 다만 조선인들은 주변 도로의 수리비로 매년 6천 루블을 부담하고 있었다.<sup>54)</sup>

녹둔도가 러시아령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인근 지명은 조선어를 기원으로 작성되었으며, 주민들은 여전히 조선과 왕래하며 생활하였다. 1920년대까지도 웅기항이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배가 다녔으며, 녹둔도에서 생산된 소금과 어물을 판매하거나 연해주의 석재나 광산물을 원산 등에 수송하였다. 일제시대까지도 녹둔도에는 농업과 상업을 경영하는 다수의 농민과 상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sup>55)</sup> 녹둔도가 농경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서 상업활동에 치중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와 해방을 거쳐 현대로 오면서 녹둔도는 공지(空地)가 되었으며, 자연환경도 인간이 거주하기 어려운 습지로 변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IV. 녹둔도 영유권의 상실과 영토협상

조선전기부터 녹둔도는 정부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국경 방어에 임하게 한 관방(關防)기지로서 역사적 배경이나 민인의 거주 상황에서 러시아가

53) 2010년 12월 10일 필자 촬영.

54) N.G. 미하일노프스키 저, 김학수 역, 『저것이 백두산이다(上) 조선!』(민족사, 1980), 90-106쪽.

55) 서무송 외, 『지리학 삼부자의 중국지리 답사기』(푸른길, 2004), 61쪽; 바라토시 벨로그 베네데크 저, 초머 모세 역, 『코리아, 조용한 아침의 나라』(집문당, 2005), 19-26쪽; 이옥희, 「두만강 하구 녹둔도의 위치 批正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39권 제3호(2004), 352쪽; 홍응호, 「19세기말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백두산 탐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2009), 448쪽.

진출할 당시에도 조선 영토였다. 그러나 1861년(철종 12) 청국과 러시아의 북경조약에 따라 경흥부 인근의 사초봉(莎草峯) 부근 봉우리에 국경비를 세움으로써 녹둔도를 상실한다.<sup>56)</sup> 이때 청국이 녹둔도를 자신들의 영토인 양 러시아에게 넘겨준 모습이 되어 조선 측의 의사는 물론이고 조선을 자신들의 속방으로 본 청국의 의도가 대외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되었다.<sup>57)</sup> 물론 당시 조선은 북경조약의 진행은 물론 러시아인이 녹둔도를 점거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지경이었다. 중화 중심의 외교관과 세계관에 묻혀 있던 조선정계에서 세계사적인 흐름과 제국주의 세력의 진출을 냉철한 시선으로 판단할 인물은 존재하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조선정계에서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를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 북경에 파견했던 역관의 보고에 따라 그 내막을 전해 듣고 있었다. 1861년 1월, 세계질서의 중심을 청국으로 알고 살던 조선인에게 황제의 열하(熱河) 도망, 북경이라는 황도(皇都)의 함락은 동북아시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극이었다. 사실 청국은 1842년 영국에 제1차 아편전쟁을 패하고 남경조약을 체결한 후 개항을 하고, 1858년 제2차 아편전쟁에 패한 후 천진조약을 체결하는 등의 격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청국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영토적 실리를 차지한 것이 러시아였다.

1860년 10월 북경의 러시아 공관에서는 청국 전권대표인 공친왕(恭親王)과 러시아 대표인 이그나티예프 사이에 전문 15조의 북경조약이 체결되었다. 러시아는 북경을 함락시키고 원명원 등을 약탈하던 서양제국과 청국 간의 중재를 성공시켜 그 대가로 청국과 북경조약을 맺은 것이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1858년(철종 9) 아이훈조약(愛揮條約)으로 연해주 땅을 청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관리하던 것을 러시아 소유로 정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는 동부시베리아 총독으로 무라비프를 임명하고 연해주 정부를 설치하여 흑룡강 연안으로부터 캄차카 반도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부동항을 얻게 됨과 동시에 조선과 두만강을 마주하는 국경을 가지게 되었다.<sup>58)</sup>

당시 조선정부는 이런 청국과 러시아의 조약은 물론 두만강 너머로

56) 신승권, 「강좌여지기·아국여지도 해제」, 『한국학자료총서』 2(1994).

57) 『고종실록』 19년 10월 12일.

58) 박태근, 「1860년 북경조약과 한·러 국경의 성립-金景遂 手本과 李錫永 牒문을 중심으로」, 『영토문제연구』 창간호(1983), 53-55쪽.

러시아가 국경을 마주하게 된 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러시아로서는 북경조약의 체결로 연해주 공동 관리지역을 영토화하여 동방진출 목적은 달성했으나 청국과의 세부적인 국경선을 획정해야 할 대상지역은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되었다. 이에 1861년 흥개호(興凱湖)에서 청과 러시아는 약 2주간에 걸친 국경회담을 열고 북경조약 추가조관(追加條款) 및 정계도(定界圖), 국경설명서에 조인을 마쳤다.<sup>59)</sup>

이런 상황에서 조선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으며, 고종대에 이르러서야 녹둔도의 가치를 파악하고 그 회복에 힘쓰게 된다. 1882년(고종 19) 1월 고종은 어윤중(魚允中)을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로 명하고 녹둔도가 본래 우리 땅이니 가서 되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보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과 러시아 간의 외교관계가 성립되기 전인 1883년, 조선정부에서는 빈번한 러시아인의 통상요청과 자국민의 월경(越境) 사태를 살피기 위해 국경지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1899년(광무 3) 청국과 러시아 간의 국경 재감(再勘) 때는 청나라 대표인 오대징(吳大徵)에게 녹둔도 반환교섭을 의뢰하였고, 러시아와 국교를 맺은 뒤에도 러시아 공사에게 녹둔도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도 조선의 변경 주민들은 조선과 러시아 간의 국경 획정(劃定)과는 관계없이 종래와 같이 두만강을 자의적으로 건너가 농경을 하였다. 이러한 조선인들의 연해주 월경에 러시아는 방관 내지 협력하기까지 했는데, 미개척지를 조선인들이 개간하게 하여 영토를 확보하려는 계책으로 보인다.<sup>60)</sup>

이런 배경으로 1889년(고종 26)까지 두만강 영역은 청국, 러시아 등의 민인(民人)이 자유롭게 이동하던 지역이었다. 두만강을 건너 조선의 농토를 경영한 자들에게 종성(鍾城), 회령(會寧) 등의 지방관은 조세를 했으며, 심지어 지명을 바꾸고 강제로 조세를 배정하기까지 하였다. 즉, 삼국 간 국경의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웠음을 시사해준다.<sup>61)</sup> 문제는

59) 심현용, 「러시아의 극동진출 전략과 국경을 둘러싼 조러 양국의 대응」, 『군사』 56(2005), 78-80쪽.

60) 박명용, 「연해주를 둘러싼 한국과 러시아 영토 문제 - 1650년에서 1900년까지」, 『북방사논총』 4(2005).

61) 『고종실록』 26년 7월 8일; 일본의무성 자료, 녹둔도 러시아령에 대한 건, MT 1419 0122, 1890년 7월 25일 일본공사의 보고.

조선의 월경인이었다. 두만강을 비롯한 국경을 월경하는 민인은 함경도 민이 대부분이었다. 지방관의 학정(虐政)과 중세(重稅)에 못 이겨 새로운 농지를 찾아 도피하는 형태로 월경한 것이다. 서수라보(西水羅堡)에 거주하는 자들은 살기 위한 방도로 러시아인에게 선박을 파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sup>62)</sup>

이 와중에도 조선정부에서는 생계를 찾아 월경한 자국민을 불량배나 무뢰민 등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인심을 회유하는 온건책과 부패한 관원을 징계하는 차원이 아닌 월경인의 감시와 검문 강화 등에 주력하였다.<sup>63)</sup> 이런 시각은 국왕인 고종도 마찬가지였다. 수백천 명의 민인이 가난과 폭정에 러시아 땅으로 월경하는 사태에도, 그들을 부모의 나라를 배반하는 어리석은 무리로 보고 있었다. 조선의 통치이념인 유교사상에 맞추어 국왕이 부모된 입장에서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을 타이르겠다는 자세로서, 당시 국경을 넘어간 백성들이 친척과 보갑호(保甲戶)에게 서로 통보하여 기한 안에 돌아온다면 용서한다는 식이었다.<sup>64)</sup> 이런 상황에서 월경인을 막거나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sup>65)</sup>

물론 조정에서는 탐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지시하기도 했으나 일시적이거나 행정적 처분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조선 측 월경인에 대해 청국과 러시아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조선이 러시아와 국교를 맺기 전부터 월경 조선인의 귀환은 국제적 논의의 대상이었다.<sup>66)</sup> 그런데 청국과 러시아는 월경 조선인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다. 오히려 조선정부 측에서 월경 조선인을 불량배라는 호칭을 써가면서까지 데려오려고 시도하였다.<sup>67)</sup> 여기서 조선과 러시아 간의 외교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860년 러시아의 국경이 연해주까지 확장되어 두만강을 경계로 양국 간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가 조선과 러시아 간 국교가 열리기 20년 전인 1864년(고종 1) 초였다. 1861년(철종 12)

62) 『고종실록』 15년 2월 5일.

63) 『고종실록』 13년 7월 13일.

64) 『고종실록』 13년 8월 9일.

65) 『고종실록』 13년 8월 10일; 『고종실록』 14년 3월 5일.

66) 『고종실록』 7년 윤10월 3일.

67) 『고종실록』 7년 윤10월 4일.

북경조약의 결과 두만강 연안에 진출한 러시아인이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였다. 당시 경흥부(慶興府) 망덕(望德)의 봉수장(烽燧將) 한창국(韓昌國)이 두만강 건너편에서 러시아인들을 발견하자 부사가 강가로 달려가 정황을 살폈다. 이때 출몰한 러시아인은 5명이었다. 경흥부사는 이들과 서신으로 연락을 하며 물품을 서로 거래하자는 제안을 지방관 임의로 결정할 바가 아니라고 거절하였다. 또한 연안의 각처에서 파수를 서거나 망을 보거나 하는 일을 보다 엄격히 강화하도록 하였다.<sup>68)</sup>

러시아는 조선 측이 통상을 거절하자 1866년(고종 3) 겨울 경원부(慶源府)의 두만강가에 와서 국경 쪽말이 있는 근처에 집을 짓고 다시 무역을 하자고 제안하지만 거절당한다.<sup>69)</sup> 그리고 1867년 또다시 통상을 하자며 서신을 보내지만 조선 측에서는 제안을 거절하며 경흥부의 단속을 엄하게 하도록 신칙한다.<sup>70)</sup>

조선과 러시아가 정식으로 양국의 외교적 관계를 맺은 것은 1884년(고종 21) 5월의 조러수호통상조약이다. 그리고 4년 뒤인 1888년(고종 25)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조아육로통상장정(朝俄陸路通商章程)이 체결되면서 양국 간의 육로 통행이 자유로워졌다. 이후 러시아는 경흥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조선인의 월경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반면 조선과 러시아 간의 외교관계가 성립되기 전인 1883년, 조선정부에서는 빈번한 러시아인의 통상요청과 자국민의 월경 사태를 살피기 위해 국경지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특히 1883년(고종 20) 조선과 청국 양국 간에 강계감사(疆界勘査) 문제가 제기되자 두만강 지역을 답사하게 된다. 이때 조사관으로 파견된 어윤중은 녹둔도가 조선 영토라고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녹둔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으로서 신이 조산(造山)에 도착하여 지형을 살펴보니 섬 동쪽에 모래가 쌓여 저쪽 땅과 연결되어 있고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sup>71)</sup>

어윤중의 보고와 같이 녹둔도는 청국과 러시아 간 북경조약 체결

68) 『고종실록』 1년 2월 28일.

69) 『고종실록』 3년 12월 12일.

70) 『고종실록』 3년 12월 13일.

71) 『어윤중전집』(아세아문화사, 1978).

후 러시아 세력이 진출했는데도 당시 섬의 거주지는 조선인이며 러시아 측에서 특별히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시설을 두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1884년(고종 21) 10월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고종은 그해 12월 권동수(權東壽)와 김용원(金鏞元)을 해삼위(海參威, 블라디보스토크)로 밀파하는데, 당시 김광훈(金廣薰)과 신선욱(申先郁)<sup>72)</sup>이 수행인원의 일원이었다. 권동수, 김용원 등은 러시아 연해주 총독인 베네프스키와 비밀회담 후 1885년 5월 귀국하게 된다.<sup>73)</sup> 이렇듯 조선과 러시아 간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아국여지도』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당시 양국 간에는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없어서 녹둔도에서 발생하는 일을 지방관이 처리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1891년 5월, 경흥감리가 아국교계관(俄國交界官) 코미사르(Komissar, 廓米薩爾)가 녹둔도에 잠관(卡關)을 설치하기 위해 월계(越界)하여 석료(石料)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조회(照會)를 받고 그 가부(可否)를 묻는 첩정(牒呈)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보고되었다. 이에 경흥감리(慶興監理)는 국법상 목석(木石)은 타경(他境)으로 감운(歛運)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조복(照覆)했지만, 4월 21일 코미사르가 또다시 조회하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보고한 후 가부를 알려주겠다고 답조(答照)하였다. 5월 7일 코미사르가 혼춘전로(琿春電路)를 이용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텐데, 이렇게 지체하는 것은 약장(約章)의 화호(和好)한다는 내용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조회를 보내왔으니, 이를 살펴 가부(可否)를 전칙(電飭)해달라는 첩정(牒呈)이 보고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월계(越界)하여 석료(石料)를 취하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지 않으니, 갑자기 허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짓게 된다.<sup>74)</sup>

한편 『아국여지도』가 작성되고 나서 1900년(광무 4) 4월, 정3품 박용원(朴用元)을 통상사무관(通商事務官, 奏任官 3등)으로 임명하고 해삼위에 주재하라고 명하였다.<sup>75)</sup> 그리고 동년 12월, 6품 권동수를 통상사무관으로

72) 『고종실록』 22년 6월 13일 기사를 보면, “신선욱과 김광훈은 모두 미천한 부류들로서 남모르게 서로 나들었으며, 또한 참가하여 간섭한 것도 많으니 모두 다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간사한 것을 막고 폐단을 제거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연대기 자료상 『아국여지도』의 작성자들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인데, 현재로서는 이들을 동일인으로 보아야 할지 알 수 없다.

73) 신승권, 앞의 논문(1994).

74) 규장각, 奎 25180 慶牒.

75) 『고종실록』 37년 4월 13일.



임명하고 주임관 5등을 주어 해삼위에 주재할 것을 명하였다.<sup>76)</sup> 권동수 등과 연해주 총독 베네프스키의 회담 이후 5년 만에 러시아 영토인 해삼위에 조선의 관원이 파견되어 통상업무를 위해 주재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녹둔도를 비롯한 연해주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한 조선정부의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 결국 『아국여지도』에 녹둔도와 러시아로 이주한 조선인에 대한 기록을 통해, 당시 조선정부가 근대적 국경 의식의 전개와 자국민 보호라는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도를 살필 수 있다. 아울러 러시아 측의 관방과 군비실태를 파악하여 국경 수비에 만전을 기하려는 태도도 엿보인다.

## V. 맺음말

러시아 연해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04년 11월 러시아-북한 국경 강화를 위한 두만강 하상(河床) 안정을 위해 러시아 쪽의 지대가 낮은 강변을 따라 제방 축조공사를 완공했으며, 강물로 침식된 구간에 돌맹이를 쌓아올리는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총구간은 북한과 러시아의 우정의 다리인 나진-하산 연결 철로 교각에서 강 하구까지 17.58km에 이른다. 이 구간에는 북한이 1990년 구소련과 국경조약을 체결할 당시 북한의 양해에 따라 러시아 영토로 인정된 녹둔도 강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녹둔도 가장자리에 제방을 축조하면 이 섬에 대한 실효적 점유와 영유권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sup>77)</sup>

녹둔도는 역사적으로 조선왕조가 영유했던 영토임은 여러 자료를 통해 충분히 규명할 수 있다. 만주의 야인(野人)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이순신이 전공을 세우는 등의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함경도 농민들이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주하며 농업을 경영하던 곳이라는 점에서 한민족과 영육을 같이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아시아 진출시기에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질서인 중화적(中華的) 사고관(思考觀)을 탈피하지 못하고

76) 『고종실록』 37년 12월 11일.

77) 2010년 러시아 극동아카데미 부소장 블라디 세르게이 박사와의 면담.

소극적인 자세로 영토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녹둔도를 점유당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녹둔도는 조선초기에 두만강 하구언의 퇴적물이 축적되어 조성된 섬이었으며, 18세기 이후 두만강 물줄기와 퇴적물의 변화에 따라 연해주에 연결되어 육지가 된 곳이다. 조선후기에 작성된 다수의 지도를 보면 조선인들이 녹둔도를 영토로 인정한 것까지는 분명하지만, 국경 영역에서의 위치와 지리적 조사는 소홀히 한 것이 보인다. 녹둔도의 위치를 함흥이나 연해주 쪽으로 그려 넣거나, 두만강 하구언을 벗어나 작성한 지도들은 당시 조선인들의 영역 의식과 녹둔도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선후기에 작성된 지리지에 녹둔도의 변화된 상황이나와 있는데도 대한제국기에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러시아가 청국과의 외교협정으로 녹둔도를 점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녹둔도가 18세기 이후 연륙화된 결과로 러시아령이 된 것이지만, 녹둔도가 연륙화가 되었다라도 조선정부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행정체계를 갖추거나 국경 요새를 건설하였다면 상실하지 않았을 지역이었다. 이 점은 당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간도와 두만강 유역에 대한 조선정부의 통제가 미흡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으며, 특별히 녹둔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고종대에 녹둔도를 회복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일제의 침략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지만, 고종이 직접 정보원을 연해주에 파견하여 녹둔도의 상황을 파악하던 모습은 대한제국기에 녹둔도를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녹둔도가 조선후기 지형의 변화로 연해주에 연육되고 농경에 부적합한 지역이 되었지만 조선인의 이주와 거주는 지속되었다. 대한제국기는 물론 일제시대에도 러시아인보다 조선인의 거주가 압도적이었으며, 지역의 경제권도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녹둔도가 지형적인 변화로 연해주에 연륙되어 러시아가 제국주의 침략의 일환으로 점유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도 녹둔도 인근은 자연환경이 열악하여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다. 이는 역으로 녹둔도가 한반도와 연결된 생활 터전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향후 러시아에서 어떠한 물리적인 조치를 녹둔도

대안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청국과 러시아 간에 이루어진 국제조약에 따라 독둔도가 러시아령이 되었다는 국제법상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독둔도의 점유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 당사자인 조선이 누락된 상황에서 진행된 청국과 러시아의 외교협정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재고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중국이 일본에 센카쿠 열도의 소유를 주장하거나, 일본이 러시아에 북방 도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변화된 국제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독둔도의 경우 센카쿠와 북방 도서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연결된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이었음은 충분히 증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조선시대 독둔도의 역사를 연대기와 고지도를 통해 정리했으며, 특히 시대적으로 변화하던 독둔도의 위치와 영토적 인식을 지도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독둔도가 조선시대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고종대에 북방 영토로 인식하여 회복하려는 모습을 각종 연대기 자료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조선시대 독둔도가 영토로 어떻게 인식되고 존재했는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반면 고종대 러시아와의 외교 교섭과 독둔도 관련 러시아 측 자료를 새롭게 발굴하여 조명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는데,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 『朝鮮八道地圖』 규장각, 고4709-54; 『八道地圖』 규장각, 고4709-14; 『八道地圖』 규장각, 고4709-23; 『八道地圖』 규장각, 고4709-35; 『八道地圖』 규장각, 고4709-41; 『八道地圖』 규장각, 고4709-61; 『여지도』 규장각, 고4709-78; 『해좌전도』 규장각, 고4912.51-H118; 『해동지도』 규장각, 고4709-107448; 『대한여지도』 규장각, 고축4709-47; 慶牒 규25180.
- 「慶興府事例」. 『邑誌 13』, 咸慶道, 아세아문화사, 1986.
- 「대동여지도」. 『輿圖』, 국립중앙박물관.
- 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
- 서울역사박물관 편, 『이찬기증 우리 옛지도』. 서울역사박물관, 2006.
- 『어윤중전집』. 아세아문화사, 1978.
- 일본외무성 자료, 『녹둔도 러시아령에 대한 건』. MT 1419 0122, 1890년 7월 25일 일본공사의 보고.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아국여지도』. 녹둔도, 2008.
- 김우철 외 역, 『여지도서 함경도』. 「경흥도호부읍지」, 흐름, 2009.
- 미하일노프스키, N.G. 저, 김학수 역, 『저것이 백두산이다(上) 조선!』. 민족사, 1980.
- 민태원 외, 이지누 편, 『잃어버린 풍경2 1920 - 1940 백두산을 찾아서』. 호미, 2005.
- 박명용, 「연해주를 둘러싼 한국과 러시아 영토 문제 - 1650년에서 1900년까지」. 『북방사 논총』 4, 2005.
- 박태근, 「1860년 북경조약과 한·러 국경의 성립-金景濂 手本과 李錫永 牒문을 중심으로」. 『영토문제연구』 창간호, 1983.
- 반병률, 「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 지신허」. 『한국근현대사연구』 26, 2003.
- \_\_\_\_\_, 「러시아 연해주 두만강 하구의 한인마을 - 크라스노예 셀로(鹿屯島, 鹿島, 鹿坪)의 형성과 변화」. 『한리국제학술회의 발표문』, 동북아역사재단, 2010.
- 버라토시 벨로그 베네데크 저, 초머 모세 역, 『코리아, 조용한 아침의 나라』. 집문당, 2005.
- 서무송 외, 『지리학 삼부자의 중국지리 답사기』. 푸른길, 2004.
- 신승권, 「강좌여지기·아국여지도 해제」. 『한국학자료총서』 2, 1994.
- 심현용, 「러시아의 극동진출 전략과 국경을 둘러싼 조러 양국의 대응」. 『군사』 56, 2005.
- 안재섭, 「두만강 하류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 - 러시아 하산지역과 녹둔도를 중심으로

- 로]. 『지리학연구』 제38권 2호, 2004.
- 양태진, 「한라국경선상의 녹둔도」. 『한국학보』 19, 1980.
- \_\_\_\_\_, 「한리 국경 형성의 배경과 녹둔도 상실」. 『백산학보』 26, 1981.
- \_\_\_\_\_, 「연해주 지역의 한인이민과 녹둔도의 영속 문제」. 『한국북방학회논집』 3, 1997.
- 유영박, 「녹둔도의 連陸過程과 국경분쟁의 未決遺産 - 녹둔도의 歸屬問題」. 『진단학보』 44, 1977.
- 이기석 등, 「두만강 하구 녹둔도의 자연과 토지이용」. 『지리교육논집』 44, 2000.
- 이옥희, 「두만강 하구 녹둔도의 위치 批正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39권 제3호, 2004.
-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 홍용호, 「19세기 말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 백두산 탐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2009.
- Bishop, Isabella Bird, *Korea and Her Neighbors*. 연세대학교, 1970.

## 국 문 요약

녹둔도는 조선전기부터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의 방비와 여진족의 내륙침입을 막는 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조선후기로 오면서 녹둔도는 섬의 기능을 상실하고 연해주에 이어지는 육지가 되어 더 이상 조선의 영토로서 존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녹둔도가 육지가 된 이후에도 조선인이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지속되었다. 두만강의 잦은 범람과 거주인이 희박했던 관계로 농경지로는 최적이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토지를 개간하고 거주하는 민인들이 조선후기에도 존재하였다. 녹둔도에 조선인이 거주하는 것은 한말에도 이어져서 한러관계의 역사적 현상이기도 하였다.

녹둔도가 우리 역사에서 러시아로 편입된 것은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북경 점령 때문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청국과 서구 제국의 외교를 중재하면서 그 대가로 연해주 일대를 영유하게 되었으며 녹둔도가 그것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당시 녹둔도가 러시아에 넘어간 것은 청국의 독단적인 일이었으며, 역사적으로나 실질 거주자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조선정부에는 어떤 외교적 통보도 없었다. 따라서 녹둔도는 한국 역사 속에 존재하였다가 근대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 와중에 상실된 영토라고 볼 수 있다.

녹둔도가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고려말 조선초기라고 생각된다. 그 이전에는 이 지역에 녹둔도와 같은 크기의 섬이 기록상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녹둔도를 발견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는데, 녹둔도가 두만강의 하구연 삼각주의 하나였다가 섬이 된 것으로 추정할 따름이다. 따라서 녹둔도의 역사는 조선초기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녹둔도가 조선의 영역이 된 것은 세종대 6진 개척 때 경흥에 행정적으로 소속되면서 부터이다. 이때 녹둔도는 경흥부 조산보에 소속되었고 조산보의 만호가 관할하였는데,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기능은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광해군 이후 녹둔도는 점차 조선 역사에서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후금의 성장과 만주지역의 긴장관계로 인해 조선정부가 녹둔도 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청국 건국 이후 여진족의 정치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두만강을 넘어 녹둔도를 침략하는 집단이 사라진 것도 한 이유이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녹둔도는 황무지로 방치되고 군사시설로도 활용되지 않는 무인도로 바뀌었다. 녹둔도가 조선전기에 비해 환경적으로 크게 바뀐 결과이다. 녹둔도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식생에 큰 변화가 시작되어 초목 없이 사구(砂丘)와 습지가 사방에 있었으며, 18세기 이후 두만강 물줄기와 퇴적물의 변화에 따라 연해주와 연결되어 육지가 되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작성된 다수의 지도를 보면 조선인들이 녹둔도를 영토로 인정한 것까지는 분명하지만, 국경 영역에서의 위치와 지리적 조사는 소홀히 한 것이 보인다. 녹둔도의 위치를 함흥이나 연해주 쪽으로 그려 놓거나, 두만강 하구언을 벗어나 작성한 지도들은 당시 조선인들의 영역 의식과 녹둔도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선후기에 작성된 지리지에 녹둔도의 변화된 상황이 나와 있는데도 대한제국기에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러시아가 청국과의 외교협정으로 녹둔도를 점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1861년(철종 12) 북경조약의 결과 녹둔도는 연해주를 확보한 러시아에 넘어갔다.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아시아 진출시기에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질서인 중화적(中華的) 사고관(思考觀)을 탈피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영토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녹둔도를 점유당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물론 녹둔도가 18세기 이후 연륙화된 결과로 러시아령이 된 것이지만, 녹둔도가 연륙화가 되었다라도 조선정부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행정체계를 갖추거나 국경 요새를 건설하였다면 상실하지 않았을 지역이었다. 이 점은 당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간도와 두만강 유역에 대한 조선정부의 통제가 미흡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으며, 특별히 녹둔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고종대에 녹둔도를 회복하려던 외교적 노력이 일제의 침략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지만, 고종이 직접 정보원을 연해주에 파견하여 녹둔도의 상황을 파악하던 모습은 대한제국기에 녹둔도를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녹둔도는 대한제국기는 물론 일제시대에도 러시아인보다 조선인의 거주가 압도적이었으며, 지역의 경제권도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녹둔도가 지형적인 변화로 연해주에 연륙되어 러시아가 제국주의 침략의 일환으로 점유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도 녹둔도 인근은 자연환경이 열악하여 접근하

기 용이하지 않다. 이는 역으로 녹둔도가 한반도와 연결된 생활 터전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으로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 당사자인 조선이 누락된 상황에서 진행된 청국과 러시아의 외교협정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재고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중국이 일본에 센카쿠 열도의 소유를 주장하거나, 일본이 러시아에 북방 도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변화된 국제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녹둔도의 경우 센카쿠와 북방 도서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연결된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이었음은 충분히 증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고일** 2010. 12. 22.

**수정일** 2011. 1. 28.

**게재 확정일** 2011. 2. 10.

**주제어(keyword)** 녹둔도(*Nokdun Island*), 두만강(*Tumen River*), 조선(*Chosun Dynasty*), 국경(*Border line*)